

## 호남 추상미술 선구자 양수아 화백을 만나다

7월 10일까지 미로센터, '드로잉으로 만나는 '무제와 행위'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7월 10일까지 미로센터 1층 미로 1에서 호남 추상미술의 선구자였던 고(故) 양수아(1920~1972) 화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드로잉으로 만나는 '무제와 행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이 주관, 광주 동구·미로센터가 협력해 준비한 시간으로, 2025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동 예술의 거리를 예술과 도시생의 실용성으로 탐미하는 사업인 '공동 1987'의 기획전인 이번 전시는 양

수아 화백의 드로잉 유작을 통해 한 시대의 예술성과 존재감을 재조명한다.

'제목 없는 드로잉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라는 콘셉트 아래 작가가 어떻게 자신의 시대를 그려왔는지를 선(線)을 통해 보여주며, 인물화, 인체 소묘, 자화상, 풍경, 일상의 단편 등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과거 회고'가 아니라, 현재의 거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선(線)의 시간'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남궁윤 예술 총감독은 "이번 전시는 예술의 거리라는 살아 있는 문화 현장에서 작가의 유작을 현재로 다시 불러

내는 작업이다"면서 "지역 예술사 속에서 잊힌 선들이 다시 호흡하고, 또 다음 세대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양수아 화백의 유작전은 광주의 예술적 흐름과 기억을 다시금 조명하는 의미있는 전시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관람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에는 휴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2-608-2131~6)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수 기자



## 광주 동구 2025 '올해의 책' 독서공모전

전 국민 대상 독후감·함께 읽는 우리 2개 부문, 8월 29일까지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책과 함께 소통하며 행복한 인문도시를 조성하고자 2025 '올해의 책' 전국 독서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다. 부문은 ▲'올해의 책' 독후감(초등부/중고등부/성인부) ▲함께 읽는 우리(가족·단체) 2개이며, 온라인 공모로 진행된다.

공모전 대상 도서는 2025 '올해의 책' 선정 도서(10권)이며, 부문별로는 유아동서는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정진호) ▲숲속 재봉사의 옷장(최향림)이며, 어린이 도서는 ▲뜰개왕(곽영미) ▲요즘 어린이로 산다는 것(김나무)이다.

청소년 도서는 ▲꿈을 걷는 소녀(백혜영), ▲취프팅(범유진) ▲너를 위한 B컷(이금미) 등이며, 성인도서는 ▲어떤 어른(김소영), ▲축복을 비는 마음(김혜진)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김기태)이다.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올해의 책' 독후감 부문은 '올해의 책' 10권 중 해당 부문 도서 한 권을 선택해 독후감(A4 1~2매 분량)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함께 읽는 우리' 부문은 가족, 이웃, 친구가 함께 팀을 구성해 '올해의 책'을 읽고 소소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독후 활동 과정을 담은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말 동구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시상식은 10월 25일 개최 예정인 '책 읽는 동구 독



서토론타마당' 행사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동구 구립도서관 누리집(lib.donggu.kr) 회원가입 후 책 읽는 동구 독서공모전 게시판에 신청서와 출력작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문도시정책과 인권인문사업팀으로 전화(☎062-608-2193)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6화제를 맞은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사업은 매년 세대별로 뛰어난 작품성과 사회적 주제를 반영한 책들을 시민들의 참여로 발굴하고, 함께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독서공모전을 통해 '올해의 책'을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독서와 글쓰기의 즐거움을 나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해경 기자

## 담양문화회관에서 어린이 판소리극 '배꼽잡는 슬로우' 공연

오는 4일 전석 1만원, 담양군민 50% 할인... 티켓링크 예매 가능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오는 7월 4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어린이 환경 창작 판소리극 '배꼽잡는 슬로우' 공연이 열린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꿈꾸는씨어터(주)의 대표 콘텐츠로, 지구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푸른바다거북 '슬로우'와 토끼 '뽀뽀'의 모험을 그린 창작 판소리극이다.

고전 판소리 '수궁가'를 재해석해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전통 예술의 멋과 교훈을 현대적으로 녹여낸 작품이다.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작으로, 담양군과 꿈꾸는씨어터(주)가 공동 주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담양 문화회관을 찾는 일이 군민의 일상이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부터 학부모, 조부모 세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인 만큼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며, 담양군민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예매는 티켓링크(<https://www.ticketlink.co.kr/product/57024>)에서 가능하다.

담양/이종욱 기자



담양문화회관에서 어린이 판소리극 '배꼽잡는 슬로우' 공연이 열린다. (사진: 담양문화회관)

## 무안군, 독립·예술영화 특별기획전 연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작은영화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작은영화관 기획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문화 소외지역의 소규모 영화관을 중심으로 예술·독립영화와 기획 콘텐츠를 상영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무안작은영화관은 국비

1,500만 원을 지원받아 8월부터 11월까지 총 30여 편의 특별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획전은 '뒤로 재생 앞으로 재생'을 주제로 국내외의 '고전영화와 독립예술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영화감독과의 대화, 관객 참여 행사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 관람도 운영해 무안작은영화관에 신청하면 된다.

허재경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모 선



무안작은영화관 내부 모습. (사진: 무안작은영화관)

## 순천창작예술촌 2호 김혜순 한복공방, '전통 주머니, 그 깊이를 만나다'

순천문화재단(이사장 노관규)이 운영하는 순천창작예술촌 2호 '김혜순 한복공방'에서 오는 7월 2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통 규방공예의 정수를 담은 기획전 '전통 주머니, 그 깊이를 만나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섬세한 바느질 문화에서 비롯된 전통 주머니와 다양한 규방공예 소품을 통해, 일상 속에 스며든 전통미와 손끝의 예술을 조명한다.

특히,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정서가 담긴 전통 주머니를 중심으로 자수 주머니, 장식용 허리 주머니, 전통 색동 조각을 활용한 창작 소품 등 정성과 상징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규방공예 작품이 소개된다.



전통 주머니 전시 포스터. (사진: 순천문화재단)

보다나인 농어촌

# 농지

지가 있다면

# 돈

금이 있습니다

# 여기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